

기본소득 논의에 관한 경영학적 접근 가능성 탐색

탁동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¹⁾

국문 요약

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직면한 지금 사회 대변혁의 시기에 노동과 소득의 관계도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노동의 부재에 의한 절대적인 노동량의 감소는 자동화, 스마트화, AI, 로봇노동 등으로 야기되며 이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은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총생산량과 국가나 사회의 자원은 늘어나지만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혁기에 국가나 정치는 개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문제들에 관해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에 대해서 복지나 부조의 관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실험수준의 시도나 연구는 많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효과를 발견했다. 광범위하게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기본소득 제도는 아직 없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의 시각을 기초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제안을 해본다. 노동시간, 노동의 질, 소득, 삶의 질, 여유시간 가치, 워라밸 등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이 포지티브 접근의 일환이라는 점을 탐색해 보았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절대적인 노동시간의 부족, 기계노동의 대체, 양극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 시각에서 도래하는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어차피 받아들일 것이면 이러한 문제를 근시안으로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원시안적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스마트 폰이 지난 10여년 사이에 세상의 변화를 가져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새로 발견한 것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요? 기술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 중심어: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사회복지, 사회보장, 노동 부재

I. 서론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국가의 소득수준이나 발전단계 수준에 관계없이 세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복지차원에서 먼저 시작하였고 이어서 법학자, 미래학자, 정치인들의 관심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3현재 산업구조와 노동방식의 변화로 기업의 디지털과 자동화 등 소위 스마트 팩토리의 확대에 따른 노동감소와 임금소득 부족을 감수해야 한다.

사람에 의한 노동이 점차 사라지는 미래에 관한 전망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젠다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이후에 다양한 인용이 있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직업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서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해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개의 새로

1)저자: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idongtag@nsu.ac.kr
· 투고일: 2022-12-03 · 수정일: 2022-12-15 · 게재확정일: 2022-12-23

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점차 사라지는 노동의 미래를 예상했다(WEF, 2016).

이 보고서에서 사무 직업군에서 48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비롯하여 제조업, 예술, 디자인, 스포츠, 법률서비스 직업군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금융, 경영, 컴퓨터, 설계, 교육훈련 관련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김교성 외, 2018).

현실에서 변화는 이러한 노동부채 예측은 속도나 형태의 논란은 있으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아마존의 인공지능 마트 아마존 고(Amazon Go)를 2016년 12월에 개점했는데, 이곳은 무선 근거리 컴퓨터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6명의 직원만으로 4,000여 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마트 평균 직원 수는 89명이다. 아마존 고 점포는 계산대가 없고 재고정리도 로봇이 한다. 또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2~3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상원 외, 2017).

한국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2016) 보고서에서 2016년에 직종별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발전예 따른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025년에 고용(실업)위협을 받는 사람이 1,8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2,500만 명의 70%를 상회한다. 직군별로는 고소득 직종이 몰린 관리자 군의 경우 대체율이 49%, 단순 노동직 군의 9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박가열 외, 2016).

자동화가 일자리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다.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데이빗 아우터 교수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의 안나 살로몬스 교수는 최근 “자동화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창출되는 일자리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자동화에 따라 기존과 다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월스트리트저널(WSJ, 2018년 5월 15일)은 ‘로봇 혁명과 조화를 이루는 대기업들’ 제목의 기사에서 로봇을 투입해 생산 자동화를 이룬 후 생산성이 높아지고 근로자 채용이 늘어난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단순하고 위험한 업무를 로봇에 넘겨준 뒤에는 사람들이 좀 더 창의적인 업무, 검사 같은 제품 품질을 높이는 업무, 복잡한 문제 해결 등에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됐으며 이것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고 채용도 늘렸다는 것이다(김덕한, 2018)

이와 같이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비판론과 낙관론은 각자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이 타당함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측에 불과해서 한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동 없는 미래를 전망하는 입장과 새로운 일자리의 출현을 전망하는 입장은 각자의 노동의 양적인 변화에 대한 전망에서 서로 큰 이견이 없다(Katz and Kryeger, 2016). 두 입장은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이 지식 노동의 성격을 바꾸어 중간 숙련 일자리까지 대체할 것이고(Baweja et al., 2016, Goos et al., 2016), 이들 중 일부는 훈련을 통해서 고숙련 직업으로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불안정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정원호 외, 2016; 김교성 외 2018에서 재인용).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기본소득의 개념과 구성요소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기본소득이 보편적 보장소득, 무조건적 보장소득, 개별적 보장소득이라는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지급되기에 일부에서는 의미를 함유한 용어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브루스 애커만 등(2011)이 정의한 기본소득의 일반적 정의는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것” 혹은 “모든 개인들에게 소득심사나 재산심사는 물론 노동의무나 요구 등의 조건 없이 월 단위로 무조건적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말한다. 이들 개념의 구성요소를 분

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성의 원칙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해당 사회, 지역, 국가, 등에 상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이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와 납세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무조건성의 원칙이다.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이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사회보험의 납부 여부와도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권이 주어지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사회보험이나 일정한 소득(혹은 재산)과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회부조와 구별된다. 또한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직업을 가져야 한다거나 그 직업이 특정 유형이어야 한다거나, 혹은 이를 위해 애써야 한다는 등 행위조건이 없어야 한다(가이 스탠딩, 2018).

셋째, 개별성의 원칙이다. 혜택이 주어지는 단위가 결혼 여부, 가족, 가구 등과 무관하게 각 개인에게 무차별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넷째, 정기적 현금지급 원칙이다. 지급기간이 매월을 근간으로 이보다 짧거나 길 수도 있지만 규칙성을 가져야 하고 그래야 수령자가 안심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 또는 무상교육과 같은 현물 이전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강남훈 등, 2009).

다섯째, 충분성의 원칙이다. 지급 수준이 최저생계비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최한수, 2017). 극히 소액을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는 지출예산의 규모에 비해 수혜자가 느끼는 실질성에서 괴리가 있어서 현실적 실효성 문제가 드러나 있다.

2.2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점들

2.2.1 기본소득과 노동의욕

기본소득과 노동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이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원리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면, 기본소득은 탈노동화(delaborization) 원리를 실현하는 정책임을 강조한다(Yoon, 2017). 근로유인 관련하여 역시 기본소득론자들은 공공부조제도가 소득과 복지급여를 연계시킴으로 인해 복지의존으로 인한 소위 '빈곤함정을 유발시키는데 반해 기본소득은 노동유무와 무관하며 따라서 일할수록 전체 소득의 증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유인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실업을 또한 낮아지지 않음을 강조한다. 반면, 기본소득 도입은 저임금 일자리의 수용성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가속 또는 저소득층의 실업자화를 통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을 증가시킨다는 실증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Cho, 2017).

노동 의욕과 기본소득을 단편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노동을 단순히 소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는 시각으로 인간의 노동 경시 시각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임금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한때 또는 지금도 '노동'을 '근로'라고 부르고 현재도 법전이나 교육에서 노동을 언급하지 못하는 무지를 비판해야 한다.

2.2.2 개원조달이 불가능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은 '기존 재원 활용방법'과 '신규 재원 발굴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조세제도의 비과세 감면을 없애고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식 등이 주로 거론된다(이원재 외, 2020). 현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어느 정도 대체할지는 소요예산 규모와 직결된 쟁점이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일 있다. 이 점에서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라는 행정효율성 가정은 검증이 필요한 쟁점이다(Wispelaere & Stirton, 2017; 이성영 외, 2022에서 재인용).

변창흠, 안균오(2009)의 연구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토지 불로소득의 규모는 총 2,002조 원가량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의 각종 세금 및 개발 부담금을 통한 환수 규모는 약 116조 원에 불과하여, 환수 비율이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생긴 토지 소득 약 2,002조 원 가운데 각종 세금과 개발 부담금을 제외한 약 1,886조 원이 모두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로소득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연평균 200조 원 규모의 토지 불로소득이 생겼다는 말인데, 이 중 절반만 매년 회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100조 원가량의 재원이 새롭게 마련된다는 것이다. 공공재인 토지를 통해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불로소득을 공공의 것으로 환원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추가한다면,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2.2.3 정치인의 득표용 선심성 주장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이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선거의 시기에 늘 논란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유권자의 관심사항이라는 점과 미래지향적인 주제이고 사회양극화 해결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시기에 만 일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논쟁이 되어서는 건전한 논의가 될 수 없고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글로벌한 주제이고 전세계적인 정치 논쟁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선거 시기에 정당이나 정치인의 단골 주제가 되기도 했다.

안철수(과거 국민의 당) 대표는 2020년 10월에 모든 청년에게 월 30만~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K 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 안 대표는 “부족한 재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성상훈, 2021). 현재 여당인 국민의 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이재명의 주요 공약이 되면서 기본소득은 단순 아이디어의 수준에서 잠재적 정책 대안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재적 정책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이선영 외, 2022). 2017년 2월 1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정책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기본소득을 좌우 가릴 것 없는 ‘시대정신’(zeitgeist)이라고 규정한 <가디언>은 이재명 시장을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전 미국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 브누아 아몽과 함께 세계적 기본소득 주창자로 꼽았다. ‘변방의 행정’에서 ‘세계의 시대정신’으로,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뜨겁다(김완, 2017).

2.3 국가별 기본소득 실험 사례

2.3.1 캐나다 온타리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2017년 4월부터 3년간 고용상태에 관계 없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 4,000명에게 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64세의 저소득층이고 미혼인 경우 연 34,000 캐나다 달러(한화 약 2,800만원), 부부인 경우 연 48,000 캐나다 달러(한화 약 4,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50%를 기본소득에서 공제하였다.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월 500달러(약 42만원)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만 자격을 노동 연령대 성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소득이 취약한 두 집단, 즉 아동과 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중요한 결점이다. 다섯명의 캐나다 아동 가운데 한명이 빈곤한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한다. 자격은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될 것인데, 파일럿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2.3.2 핀란드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이념은 1970년대에 출현하였다(권정임, 2014). 2016년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발표하고, 실험설계안 마련 등의 준비 업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본소득 관련 사회적 실험을 실시하였

다. 25세에서 58세 중에서 2013년 11월에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에서 무작위로 2,000명을 추출하여 조건없이 월 560유로(한화 약 72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였다. 여론에 따르면 핀란드인의 거의 70퍼센트가 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했으며 이는 유례없이 높은 비율이었다. 재정적 소심함에 좀더 초점을 맞추면, 규모를 전체 인구로 확대할 경우 파일럿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부가 사회수당에 쓰는 기존 지출보다 적다. 연령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국소적인 대상을 실험해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적성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도하고, 기여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실험의 결과를 주목해 볼 만하다.

2.3.3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네덜란드에서는 위트레흐트, 텔버그 등 6개 지역에서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었다. 네덜란드는 사회부조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승인으로 지방정부 단위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위트레흐트의 경우 2018년 기준 독신 가구에 지급된 월 기본소득 최고액은 992유로(한화 약 127만원)였으며, 2인 가구의 기본소득 지급은 최고 월 1,417유로(한화 약 181만원)였다. 네덜란드의 실험은 기본소득이라기 보다는 사회부조 실험에 가깝고 위트레흐트의 의도도 사회부조를 받기 위한 조건 또는 의무를 완화시킬 때의 효과 연구라고 명시하고 있다(최한수, 2019).

2.3.4 미국 알래스카

알래스카주에서는 1976년부터 석유 등 천연자원 판매 수입의 일부를 활용해 펀드(Permanent Fund)를 조성하고, 1982년부터 자산이나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알래스카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이 배당금은 과세대상 소득이다. 매년 1천에서 2천 달러 정도이고 배당금이므로 일정치는 않다. 2016년에는 1606달러, 2017년 1,100달러 2020년에는 992달러가 지급되었다(<https://pfd.alaska.gov>).

2.3.5 캐나다 기후행동장려금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8년 탄소가격제도(GAPPA)를 도입하여, 2019년부터 톤당 탄소가격을 20캐나다달러에서 출발해 2022년 50캐나다달러로 인상했다. 이 재원을 각 주정부에 배정해 기후장려금(climate action incentive)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는 탄소가격제도로 인해 늘어난 주민의 부담을 기후행동장려금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2021년 가구당 기후행동장려금의 평균 환급액은 592캐나다달러(당시 한화 약 54만원)에서 969캐나다달러(한화 약 88만원)이지만, 탄소가격제도 도입에 의한 가구당 평균 비용부담이 439캐나다달러에서 720캐나다달러이므로 순환급 금액은 10만원~20만원 정도다.

2.3.6 스위스

스위스는 2016년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지만 부결되었다. 당시 스위스 정부가 국민투표에 부쳤던 기본소득 지급안은 모든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원),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매월 650스위스프랑(한화 약 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이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이와는 별도로 스위스는 2000년부터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부담금 수입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당(생태배당금)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탄소부담금 수입의 3분의 1은 주택 및 건물의 재생 가능한 난방 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사용된다. 2021년 기준으로 개인 배당금은 87프랑(약 10.7만원) 정도이고, 기업 탄소배당금을 피고용자의 노령연금 납부를 위해 고용주에게 지급한다(안종석 외, 2021).

2.3.7 경기도와 성남시

성남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 청년 만 24세가 되는 당해 년도에 분기별 25만

원씩(연 100만원) 지역화폐로 청년배당을 지급하였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유사한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지역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분기당 25만원(연 100만원)씩 지급하고 대상자 대비 실제 지급률은 92.5%로 거의 실행되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부분’기본 소득으로 보이며, 해당 연령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무조건적 일정액을 1년 동안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충분성 조건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청년들의 고민을 지자체가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삶에 배려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견해와 함께 청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성이름, 2016).

2.3.8 서울시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서울시 거주 만 19에서 34세 사이로 졸업 후 2년이 지나도 미취업일 때 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지급된다.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50만원 중 5만원은 제로페이로 사용해야 하고 이전 연도에 사업참여자는 제외 된다(서울시, 2021).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내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표1>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국내외 사례

국가(지역)	기간	지원 대상	성격	지원액
캐나다 온타리오	2017~2018	18~64세 저소득층	사회 실험	1인당 연 약 1,400만원 (부부 연 약 2,000만원)
핀란드	2017~2018	25~58세 실업수당 수급자	사회 실험	1인당 월 약 72만원
네덜란드 워트레흐트	2017~2018	사회부조 수급자	사회 실험 사회부조 개선	1인당 월 약 127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미국 알래스카	1982~	1년 이상 거주자	사회적 배당	1인당 연 약 108만원 (매년 달라짐)
캐나다	2018~	개인소득세 신고자	사회적 배당	1인당 연 약 54~88만원 (탄소가격제도 감안 연 10만~20만원)
스위스	2018~	스위스 거주자	사회적 배당	1인당 연 약 10.7만원 (매년 달라짐)
성남, 경기도	2016~	만24세, 3년 이상 거주자	청년 지원	1인당 연 100만원 (분기 25만원)
서울	2008~	19~34세 미취업청년	청년 지원	1인당 월 50만원 (3개월~6개월만 지급)

III. 기본소득의 경영학적 접근 탐색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득이 보장되고 증가하는 것이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 근거해 얻는 것이 본질이나, 산업의 변화로 인해 노동구조와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여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 대 산출요소인 소득이나 임금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양한 노동의 방식이 적용되어 사람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비중 약화를 회피하기는 어렵다.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노동의 다양한 현상에서도 인간의 중요성과 가치는 존재하고 오히려 삶과 라이프 스타일의 기회는 폭넓게 추구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면에서 오히려 다각적인 시도와 논란의 중심에 복지와 인권의 관점에 더불어 기업과 경영학적인 논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접근가능성 탐색을 제안해 본다.

3.1 가치분소득 증가의 심리적 효과

Covid-19를 겪으면서 개인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으로 인적교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한된 소비 활동으로 물질적 빈곤과 소통부재에 따른 심리적 우울감을 실감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접촉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다. 코로나가 가져온 것은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침해받고 위축됨으로 그것의 중요성을 각인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고립을 하면서 경제활동의 제약을 실감하고 노동, 생산, 수출입, 여행, 소통, 소비의 불완전을 경험하고 약간의 제약완화가 가지고 오는 안도감과 자유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 경제의 핵심인 소비활동의 자유로움이 주는 심리적인 경험을 처음으로 느끼고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과 생산에도 소비가 얼마나 기여하는 지를 국가 경제의 차원에서 거시적 담론이 되어야 한다.

3.2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

앞에서 기본소득의 근거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결국은 노동시간 단축과 결을 같이한다. 즉 산업의 변화가 노동시간의 축소와 소득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가지는 효과를 노동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2018년 근로기준법에서 주당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의 이유로 장시간 노동의 결과는 높은 자살률, 세계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주당 노동시간이 길수록 노동자의 건강이 나빠져 결근, 조퇴, 지각 등 업무수행의 양과 질의 저하로 귀결된다(이동욱, 강모열, 2021).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고려할 때, 노동시간 단축은 그 이익이 크다고 보여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권용만, 2022).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의 가치를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남은 시간을 창의적 시간에 보다 투자하고 일과 생활의 조화로 소위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실현할 수 있다.

3.3 새로운 산업의 출현

노동시간 단축이 비록 산업의 변화로 초래되지만 총생산량의 확대와 기본소득의 실현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유시간의 증가로 이어지고 여기에 기본소득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노동자의 노동과 관심의 변화로 늘어나는 소득과 노동시간 단축, 여유시간 증가는 새로운 유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탄생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진다. 즉 단순한 업무는 기계와 자동화로 대체하고 사람들은 새로운 소비문화를 개발한다. 이는 새로운 기업과 제품, 비즈니스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노동과 기술의 진보로 연결된다. 여유와 여가의 확대는 문화와 콘텐츠 산업으로 이전되어 일과 놀이의 융합으로 노동과 생활의 혁신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 폰을 개발함으로 유선전화, 개인용 컴퓨터 등 기존의 유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과 관련된 제품들이 사장되었지만 지금은 스마트 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인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신산업과 신제품의 등장은 개인의 소득이 기반되지 못하면 발전하기 어렵고 노동감소로 어려워질 수 있는 소득을 기본소득이 보전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선순환에서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다.

IV. 결론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진국들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보험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문화분야에서도 K-pop, K-culture 라고 하는 신조어가

지 탄생시켜 글로벌 보편적 용어가 되고 지구인의 관심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런 기초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확립되지않은 지금 한국이 리딩 국가로서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실험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현실적인 기본소득제도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긍정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다.

기본소득이 빈곤 해결을 위한 더 나은 수단이 아니라 사회배당으로, 사회정의, 자유, 기본적 보장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수사적 정당화 근거는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대규모 기술적 파괴의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준비, 국방 정책과의 유비,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준비와 방책 등이다. 역사를 보면 정치가들이 너무 늦게 반응한 때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미리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기회가 있다(가이 스탠딩, 2018).

고소득자와 달리 중산층 이하는 소득이 없으면 소비가 없다. 고소득자는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가 정의 관계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는 소득의 자산축적 보다는 소비에 기여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코로나 시기에 전국민 재난기본지원금의 소비를 보면 확실한 답이 보인다. 물론 이를 기본소득에 바로 적용해 대치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유추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고객의 제품 소비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실제로 임금노동이 부재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인간의 관심은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보다는 노동 이외의 시간과 여유에 들 것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에 보다 집중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업이나 제품이 성장할 것이다. 더 이상 전통적 소득 창출(돈벌이) 수단으로서의 타율적 노동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율적으로 찾아야 하는 창의적·창조적 작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정책방향 역시 일자리 자체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대신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소득보전 수단(예를 들면 보편적 기본소득 등)을 발굴하고 인간중심의 시간과 여가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실로 '혁명' 적인 시스템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염명배, 2018).

REFERENCE

- 가이 스탠딩 저, 안효상 옮김(2018),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창비, 서울
- 강남훈, 광노완, 이봉수(2009),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민주노총.
- 경기도청(2021), <https://gg.go.kr>. 2022. 11. 21. 검색.
- 고상원, 권규호, 김대일, 이정민, 홍석철, 홍재화(2017), *4차 산업혁명의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 고용노동부(2018), *탄력적 근로시간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 국회입법조사처(2020),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2020. 3. 19.
- 권용만(2022),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벤처혁신연구*, 5(3)
- 권정임(2014), 북구 복지체제의 위기와 핀란드의 기본소득 운동, 강남훈, 광노완의 2014,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인 현황과 전망*, 박종철출판사.
-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https://basicincomekorea.org>. 2022. 11. 21. 검색.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울.
- 김덕한(2018), "로봇 때문에 내가 해고된다고? 이상하다, 로봇 덕분에 일자리가 늘어난다," *조선일보*, 2018. 5. 28.
- 김완(2017),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뜨겁다*, 한계레21, 2017. 3. 29.
- 박가열, 천영민, 홍성민, 손양수(2016),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변창흠, 안균오(2009), "개발이익 환수규모 추정과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3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서울시(2021), 서울시 올해 약 2만명 미취업 청년에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보도자료*, 2021. 2. 10.
- 성남시(2019), *성남시 청년배당 효과분석*. 2019. 12.
- 성상훈(2021), “안철수, 모바일 정당·K기본소득 등 내놨지만…평가 '극과극',” *한국경제*, 2021. 1. 5.
- 성이름(2016), 청년배당 대상자 FGI 및 설문조사 결과, 녹색전환연구소/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청년들, 청년배당에 답하다!: 성남시 청년배당 인식조사 결과발표 및 쟁점토론, *토론회 자료집*, 2016. 9. 28.
- 안종석, 정재호(2021),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10).
- 염명배(2018), “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경제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36(4).
- 이동욱, 강모열(2021), “주당 근로시간 길수록 노동생산성은 떨어져,”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2021. 2. 18.
- 이선영, 신현기(2022),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쟁점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분석,”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 16(1).
- 정원호, 이상준, 강남훈(2016),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한수(2017),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51호.
- 최한수(2019), “기본소득 모의실험: 근로연령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처, 8(2).
- 경기도청(2021), <https://gg.go.kr>. 2022. 11. 21. 검색.
-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https://basicincomekorea.org>. 2022. 11. 21. 검색.
- 김덕한(2018), “로봇 때문에 내가 해고된다고? 이상하다, 로봇 덕분에 일자리가 늘어난다,” *조선일보*, 2018. 5. 28.
- 김완(2017),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뜨겁다*, 한계레21, 2017. 3. 29.
- Alaska Department of Revenue(2021), Permanent Fund Dividend Division, <https://pfd.alaska.gov>, 2022. 11. 21. 검색.
- Baweja, B., Donoval, P., Haefele, M., Siddiqi, I., and Smiles.,(2016), Goos et al., (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aper presented at the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Annual Meeting.
- Cho. K.Y.(2017), “The Effects of Basic Income Policy upon Income Redistribution and Labor Supply,” *Korea Economy Research Institute*.
- Katz, L. F. and & Kryeger, A. B.,(2016), *The Rise and Natur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in the Uniter States*, 1995-2015.
- Wispelaere, J. and Stirton, L.(2017), “When basic income meets Professor Pangloss: ignor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perils,” *Political Quarterly*, 88(2).
- World Economic Forum(WEF)(2016), *The Future of Jobs*.
- Yoon H. S.(2017), “Basic Income, Can This Be an alternative to welfare state?,” *Critical Social Research*, No. 54.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Management Approach to Basic Income Discussion

Tag, Dong-il¹⁾

Abstract

In the face of revolutionary changes in industry,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income needs to be reconceptualized in the period of social revolution. The absolute decrease in labor due to the absence of labor is caused by automation, smartization, AI, robot labor, etc., which we must accept whether we want to or not. However, while gross social product and capital of the state or society increase, individual income is likely to decrease. During this transformation period, the state or politics must prepare for the problems caused by the decline in individual income. Until now, there have been various levels of discussion on social welfare or social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welfare or assistance. Attempts or studies at the experimental level have been conducted at the level of many countries or local governments and have found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There is no basic income system that is widely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and various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Therefore, I propose to look at it from a new perspective based on the perspective so far. We explored that it is part of a positive approach to examin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basic income in terms of working hours, quality of labor, income, quality of life, value of spare time, and work-life balance. The goal is to actively accept the absolute lack of working hours, replacement of mechanical labor, and polarization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y paradigm, and to look at the problems that come from a positive perspective. If we are going to accept it anyway, we should not look at these issues as short-sighted, but prepare them preemptively and establish a primitive plan from a long-term and overall perspective. Smartphones have changed the world over the past decade and have been lost, but wouldn't there be a lot of new discoveries? Shouldn't we think of it as a great opport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echnological changes?

Keyword: Basic income,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welfare, social security, absence of labor

1)Author, Professor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at Namseoul University, idongtag@nsu.ac.kr

저 자 소 개

- 탁동일(Tag, Dong-il)
-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경영학박사(마케팅 전공)
<관심분야> : 마케팅, 마케팅 트렌드분석, 광고, 기업 혁신, ESG, RE 100